

## 광주시립도서관, 도서관주간·책의날 행사 ‘풍성’

24일부터 작가와 만남·체험 참가자 접수... 대출정지 해제 이벤트도

광주광역시 시립도서관(무등·사직·산수·하남)은 '도서관 주간'(4월 12~18일)과 '세계 책의 날'(4월 23일)을 맞아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마련, 3월 24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는다.

매년 4월 12일은 '도서관의 날'로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정기념일로 지정했으며, 매년 4월 23일은 1995년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책의 날'이다.

전국의 도서관은 이를 기념해 매년 4월 12~18일을 '도서관 주간'으로 정하고, 4월 한 달 간 작가 강연, 체험, 독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시립도서관도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별 일정에 따라 대출이용 정지 회원이 연체 도서를 완납하면 대출정지를 해제해 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또 도서관별로 작가와의 만남,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무등도서관은 ▲그림책 연계 슈링클스 공예체험 '빅(Big)그림책, 스몰(Small)키링'(4월 12일) ▲김경희 그림책 작가 초청 강연 '그림책에서 만나는 긍정과 용기'(4월 18일) ▲세계 책의 날 기념 '책을 펼치면 마음에 꽃이 핀다' 펄아트 화병 만들기(4월 23일) 등 총 5개 행사를 운영한다.

사직도서관은 ▲시집 릴레이 필사 프로그램(4월 1~30일) ▲환경·생태 관련 도서 전시 및 '식물적 낙관' 원화 전시(4월 1~30일) ▲체험 프로그램 '자연'을 품다, 나만의 다이어리 만들기(4월 15일) 등 5개 행사를 진행한다.

산수도서관은 ▲김미혜 작가와 함께하는 책놀이 강연(4월 18일) ▲'나만의 우드 독서대 만들기' 체험(4월 23일) ▲'봄날의 꿈' 원화 전시(4월 1~23일) ▲'파란색 미술관' 주제 전시(4월 1~23일) 등 총 5개 행사를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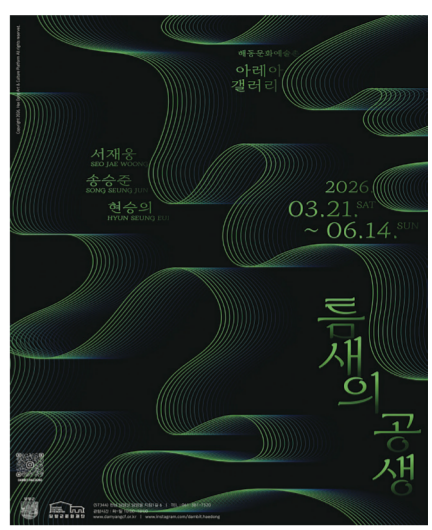
하남도서관은 ▲'지구를 지키는 업사이클링 팝업 북' 체험(4월 14일) ▲김선지 작가 초청 인문학 강연 '시간을 읽는 그림-그림으로 읽는 역사 이야기'(4월 15일) ▲'동시집' 원화 전시(4월 12~30일) 등 총 6개 행사를 마련했다.

강연·체험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3월 24일부터 시립도서관 누리집 '문화강좌 신청' 메뉴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https://citylib.gwangju.go.kr>)을 참고하거나 무등(613-7727), 사직(613-7779), 산수(613-7812), 하남(613-7472)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경희 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 주간을 맞아 시민



들이 책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2026 상반기 전시 프로그램 다채 기획전시 "틈새의 공생" 및 어린이체험전시 "마음 보관소" 동시 개최

담양군문화재단 해동문화예술촌이 지난 21일 2026 상반기 기획전시와 어린이 체험형 예술전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아래아갤러리에서 선보이는 기획 전시 <틈새의 공생>은 '생태도시' 담양의 성격에 맞춰서 자연 중심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생태적 관계를 조명하며, "순수한 자연은 과연 존재할까?"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서재용, 송승준, 현승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기획전시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넘어, 다양한 존재들이 공존하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전시는 6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소동동에서는 어린이 체험형 예술전시 <장미 작가와 함께하는 마음보관소>가

개막했다.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안부와 위로'를 키워드로 삼아, 어린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타인과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7월 11일, 8월 1일에는 작가와 함께하는 전시연계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생한 해동문화예술촌은 실험예술을 기반으로 원도심 활력을 불어넣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관객에게 수준 높은 시각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2027 남도 정원 비엔날레에 맞춰 담양의 생태적 가치와 예술을 결합한 다채로운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양/이종욱 기자

### 강진영화관, '4월 영화 보는 날' 군민 발길 기대

강진영화관이 군민이 더 쉽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는 '영화 보는 날' 행사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4월 17일 문을 연 강진영화관은 개관 1주년을 앞둔 올해 3월 22일 기준 누적 관람객 3만 명을 넘어서며 군민들의 꾸준한 관심 속에 지역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강진영화관의 '영화 보는 날'은 연중 강진군민을 대상으로 관람료를 반값 할인하는 행사로,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영화 관람 부담을 덜기 위해 매월 첫 번째 토요일과 명절, 공휴일에 운영하고 있다.

이 행사는 실제 이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1일과 2일, 7일 모두 3일 동안 414명이 영화관을 찾았다. 특히 영화 '왕과 나는 남자는' 군민 4천 명이 관람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강진군은 이러한 호응이 누적 관객 3만 명 돌파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진군은 4월에도 '영화 보는 날'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4월 행사는 첫 번째 토요일인 4월 4일과,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영화관이 누적 관람객 3만 명을 돌파한 것은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만들어낸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영화 보는 날'과 같은 다양한 할인 행사를 통해 군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부담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순천시 신대도서관은 오는 4월 2일 오후 1시 30분, 신대도서관 열린강당에서 영유아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다시, 적기교육' 북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유아교육계의 권위자인 이기숙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도서 '다시, 적기교육'의 공저자인 강

순천시 신대도서관, '다시, 적기교육' 북콘서트 개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순천에 유아교육 권위자 한자리에

숙현(제일대 교수), 강민정, 강수경 박사 등 이화여대 박사진과 일본 교육 현장을 잇는 번역가까지 총 5인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파격적인 라인업으로 기획됐

다. 수도권에서도 보기 힘든 '유아교육 드림팀'을 오직 순천 신대도서관에서만 만날 수 있다.

북콘서트는 피아노와 반도네온의 감성

적인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저자 5인의 릴레이 발제 및 북토크, 시민들과 실시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강연은 '0~7세 아이의 뇌 발달 단계에 맞춘 최적의 교육법'을 주제로, 조기 교육의 과열 속에서 불안해하는 부모들에게 과학적인 근거와 따뜻한 위로를 전할 예정이다. 순천/정성민 기자

보다 나은 농어촌

# 농어촌

지가 있다면

금 바로 가입해야 할

금이 있습니다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

농림축산식품부 **kf**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은행·농지연금